




서울 Y-밸리협의회 제2차 조찬포럼 개최

서울 Y-밸리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2차 조찬포럼을 개최했다

서울 Y-밸리협의회(회장 윤영근, (주)코젠 대표)는 지난 해 12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2차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양재·우면 R&CD 특구 개발계획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.

Y-밸리협의회 윤영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“대기업 중심의 단지형 R&D 육성을 넘어, 중소기업도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기업간 교류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서울시는 양재·우면 일대 약 300만㎡에 R&CD 공간을 확충하여 서울의 대표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며,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산·학·연 연계, 기업 간 공동개발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한편 이날 포럼에는 우림플랜트(주) 변동주 대표, (주)동양이엔씨 최두현 대표(Y-밸리협의회 부회장) 등 회원사가 참석해 양재·우면 R&CD 특구 개발 현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. 

이날 포럼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석 교수가 ‘판교클러스터 구축사례와 정부의 역할’을,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상길 팀장이 ‘양재·우면 R&CD 특구관련 기업체 인터뷰 결과’를,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나일청 팀장이 ‘양재-우면 R&CD 특구 추진 계획’을 발표했다.



Y-밸리협의회 윤영근 회장은 “양재·우면 개발에 중소기업도 적극 참여하여 기업간 교류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